

광산구 “이한열 열사를 기억합니다”

신창동 ‘1987 이한열 마을문화제’ 개최…공연·체험 다채



광산구는 지난 11일 신창동 역사 문화공원에서 ‘1987 이한열 마을문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그대가 꿈꾸던 내일, 오늘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주민모임·문화공연·체험 행사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한열 열사와 그의 어머니인 배은실 여사를 기리는 특별 사진전’을

비롯해 ‘5·18 주먹밥 체험’, ‘기억의 의사 목공체험’, ‘마을문화제 사진 공모전’, ‘오케스트라 버스킹’ 등이 진행됐다.

한편, 이한열 열사의 모교인 광주 진흥고등학교가 있는 신창동은 2020년부터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이한열 열사를 기리기 위해 마을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동기 기자

청년 음악가 참여 ‘문화상생 목요콘서트’

퓨전국악, 클래식 등 오는 11월까지 다양한 장르 공연

북구는 오는 11월까지 북구문화센터에서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2022년 무대나눔 프로젝트·문화상생’ 목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지역의 청년 음악가들에게 공연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6월 16일 오후 7시 30분 첫 공연으로 ‘울대국악앙상블 이름’이 ‘재즈와 국악의 조화’라는 주제로 퓨전국악을 선보인다.

7월에는 ‘그나테(Gnade)웨로 그로텍’, 8월은 잠시 멜辱을 주제로 팝밴드 ‘로든’과 ‘원보틀’이 함께하는 ‘리듬&블루스’ 스타일의 음악으로 무대를 꾸민다. 9월에는 ‘모이즈플루트 양상설’이 이름다운 선율의 클래식을, 10월은 크로스오버 밴드 ‘새날’의 퓨전국악, 11월에는 에듀페포밍 그룹 ‘이끈음’이 ‘유퀴즈 온더 블록’을 오마주하는 연주를 펼친다.

/권형안 기자

동구-한국마사회 광주지사, 업무 협약

지역아동센터 4곳에 강사·재료비 등 1천만 원 지원



동구는 지난 9일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와 아동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임택 동구청장과 정지현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장, 지역아동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아동의 재능 발전과 정서적 성장을 도울 것을 주고자 마련됐다.

/김도기 기자

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마사회 광주지사는 동아리 활동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동구는 동아리 활동 지원센터로 선정된 지역아동센터 4곳에 약기, 공예, 영상 등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강사료 및 재료비 등을 오는 10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김도기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데이트폭력 잇단 발생에도 보호법 ‘지지부진’

데이트폭력 법 규정없어 가·피해자 분리 못해

관련법 발의됐으나 “교제 관계의 범위 불명확”

헤어지자는 연인을 찾아가불을 지르거나 폭행 끝에 살해하는 등 데이트 폭력(교제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교제 관계를 법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에서 연인 간 폭력의 피해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똑같이 보호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신고건수는 2016년 9364건, 2017년 1만303건, 2018년 1만245건, 2019년 1만9940건, 2020년 1만8945건으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다.

데이트 폭력은 여러 번 반복돼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부

부 관계에서 일어난 폭행은 즉시 분리나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연인 관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2016년 이후 데이트 폭력을 별도로 규정한 특례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교제 관계’도 가정의 일환으로 보고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한 가정 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을 발의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가정 폭력법에 조항을 넣어 빌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의 부정적인 견토 의견이 제출됐다. 가

정의 평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 폭력처벌법에 단순 교제 관계를 포함시키는 건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교제 관계’의 범위가 법적으로 불명확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국회 견토보고서는 “이런 정의만으로는 단순 친구 관계를 배제할 수 없고 결혼한 사람끼리의 교제, 동성 간 교제 또는 3자 이상의 교제 등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모두 포함할 수 있어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 교제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어려울 때는 경우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선진국에서 가정 폭력과 데이트 폭력을 같은 범주에 넣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행사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에서는 각각 가정 폭력방지법과 여성 폭력방지법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시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영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연인의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클레어법’도 시행 중이다.

하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문자 등 SNS 대화나 어떤 모임에 연인으로 나타났다는 증언 등을 통해 연인 관계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다른 국가에선 다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해외에서는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폭력을 같은 법으로 다루면서 ‘친밀한 관계’를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부정적인 견토 의견에도 국회에서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법 통과가 가능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논의에 미온적인 모습이다.

국회 보좌진 출신의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법이 계류되어 있는 동안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일주일에 한 명꼴로 사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정 폭력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11일 발의됐으나 1년 넘게 논의되지 않았다.

/뉴스

5·18 민주광장 분수대 ‘광주의 밤’ 밝히다…매주 금·토 저녁

도심야간관광의 시작…매월 새로운 컨텐츠 선봬



동구가 지난 10일 5·18 민주광장 분수대에서 자유·인권·평화의 정신을 미디어아트로 구현한 ‘빛의 분수대’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임택 동구청장, 장희국 교육감, 오월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점등식을 진행했다. 이밖에 오월단체, 문화예술단체 회원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빛의 분수대’ 개막을 축하했다.

미디어아트로 구현된 메인 공연은 ‘빛의 분수’를 포함한 3개의 작품이 상영됐다. 대표 작품인 ‘빛의 분수’는 워터 스크린, 움직이는 대형 키네

틱 조형물, 바닥 인터렉션 맵핑을 활용해 1980년 5월 당시 친란한 연대를 상징하는 ‘햇불’을 끼지 않고 끊임없이 타오르는 ‘빛불’로 재해석해 자유·평화·인권의 정신을 표현했다.

또한 ‘밝은 미래(A Bright Future)’와 중국의 미디어아티스트 류양(Lu Yang)과 영국 출신의 팝 밴드 THE1975가 협업한 ‘Playing on my mind’도 함께 선보였다.

‘빛의 분수대’ 미디어 아트는 매주 금·토요일 저녁 8시 15분부터 약 30분간 5·18민주광장을 찾은 시민들과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정기 상영하고 매달 새로운 컨텐츠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도기 기자

전남교육청, 초·중등 교사 과학실험 안전교육

전남교육청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과학 분야 초·중등 교사와 과학 실험실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초·중등 과학실험 안전 교육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과학실험 안전 교육은 안전한 과학 탐구 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실

험실 담당 교사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과학실험실 관리와 점검, 화학약품 관리, 폐수·폐시약 처리,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동물 해부 실습과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안전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박종배 기자

졌다. 이번 교육은 각급 학교 별 교육 내용과 특성에 맞게 구분해 진행했다. 전남교육청 고광진 미래인재과장은 “교육 현장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학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수업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배 기자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본사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 honamnews@hanmail.net